

‘이건희 컬렉션’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만날까

‘천경자·오지호·김환기 작품, 전남도립미술관 품에 안기나?’

다음 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작품이 전남도립미술관과 대구미술관 등 지역 미술관에도 기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이건희 컬렉션은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해 국내외 근현대미술품 1만 3000점, 감정가액은 2조 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작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30점과 보물 82점을 비롯해 파블로 피카소·클로드 모네·마크 로스코의 명작 등 서양 근현대미술 1300여점, 이중섭·박수근의 주요 작품 등 한국근현대미술 2200여점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계에서는 추정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미술품 상속세로만 1조원 넘게 내야한다는 점을 감안, 컬렉션 중 일부 작품들이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기증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국보급 문화재 등 고미술품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과 서양미술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연고를 둔 일부 작가들 작품의 경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역 공립미술관 기증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3월 공식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이 기증처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남도미술의 아카이빙을 주요 가치로 내걸고 있다. 기증 여부가 오르내리고 있는 작가들은 고흥 출신의 천경자, 신안 출신의 김환기, 화순 출신의 오지호, 광주·전남의 허백련 화백 등 한국 근현대 화단의 대표적 작가들이다.

20일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기증될 구체적인 작품, 규모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직 없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은 개관 전 소장작 구입을 통해 김환기 화백의 ‘I-1964’, 천경자 화백의 연필 소묘 작품 ‘디자이너’, 오지호 화백의 ‘항구’ 등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지호 화백의 ‘설경’ 등 7점, 천경자 화백의 드로잉 20점, 김환기 ‘무제’ 등 3점을 소장중이다.

또 다른 지방 공립 미술관인 대구미술관에는 대구 출신인 이인성, 이쾌대 작가의 작품이 기증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이번 컬렉션의 면면은 화려하다. 이번 컬렉션의 부친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개인으로

천경자·김환기·오지호 등 지역작가 언급
도립미술관 ‘구체적 작품·규모 확정 안돼’

문화재·미술품 등 1만3000여점 중 일부
국립현대미술관·중앙박물관 기증 확정

는 국내에서 국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컬렉터였고 ‘인왕제색도’(국보 제21호), ‘금강전도’(국보 제217호),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118호) 등이 컬렉션 안에 포함돼 있다. 또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모네의 ‘수련’ 등과 박수근의 ‘빨래터’ 등 국내 근현대 작가 작품들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미술품 등을 포함해 모두 22~23조원가량이며 유족이 납부할 상속세는 총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색을 담다’

삶의 모습에 ‘색을 담다’

유미란 개인전, 30일까지 LH휴광갤러리

‘화폭에 피어난 화사한 색의 향연.’

서양화가 유미란 작가 초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색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유 작가는 다양한 색의 조화로 온 구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탐구하려 노력했고, 색을 담은 소재로 장미의 형상을 빌려왔다.

화면을 빼곡하게 채운 장미꽃들은 각자의 이상적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색채를 통해 개인의 감성과 감정, 삶의 의미를 다채롭게 표현해냈다.

유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색상, 크기, 표현의 다양함을 통해 서로 개성적인 모습을 선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캔버스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개성과 조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이자, 세상의 풍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유 작가는 지금까지 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47회 근대일본미술협회 초대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협, 전우회, 조형21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4일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공연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인 국립남도국악원이 이번에는 꿈틀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공연을 준비했다.

토요일 공연 ‘국악이 좋다’가 오는 24일 오후 5시에 ‘이산저산 꽃이 피니’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쟁 명인 김영길이가 새롭게 구성한 기악합주 ‘남도시나위’, 판소리 입체창으로 듣는 ‘춘향가’ 중 ‘사랑가’, 생황의 부드러운 금속성 음색과 단소의 맑고 청아한 음색이 대조를 이루는 생소병주 ‘수룡음’, 천하 명산의 금강산 절경을 묘사하고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민요 ‘금강산타령’, ‘꽃피는 새동산’, 이수현 구성의 ‘우도 설소고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으로 선착순 190명을 모집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기존 노선 외에 새로운 노선(솔비치 진도 출발 오후 4시20분)을 추가해 관람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공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2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마크 로스코 작 ‘붉은 색 위에 흰색(왼쪽)과 이중섭 작 ‘황소’(오른쪽)



전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환기 작 ‘I-1964’



‘침묵의 소리’

‘달항아리’ 자연을 품다

정상섭 초대전, 5월5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환자 쾌유를 기원하는 서양화가 정상섭 초대전을 내달 5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홀로 뜨는 달을 위한 아다지오’라는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달항아리를 주 소재로 하면서 꽃·나무·새 등이 어우러진 자연풍경을 재구성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 제목 아다지오(Adagio)는 음악에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로 ‘천천히’, ‘매우 느리게’를 뜻하는 것으로, 작품을 통해 느낌을 체감하게 하는 듯하다.

작품 속 달항아리는 의도된 울퉁불퉁한 형태와 함께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주면서, 마치 우주에서 서서히 유행하는 행성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특히 ‘침묵의 소리’는 허공에 떠있는 달항아리와 작은 잔이 짙은 바탕색에 대비돼 마치 우주의 행성을 보는 듯해 갤러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한국미협 서양화 분과이사,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전남미술가회, 국제현대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유명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